

독립운동가 필적 연구

친필, 모든 것을 포용하다

8월의 히어로
구본진 변호사



국내 1호 필적연구가 구본진. 그의 본업은 변호사지만 필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필적 수집과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런 그가 가슴에 품은 특별한 미션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필적을 찾아 세상에 소개하는 일이다.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 여기는 그의 태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이 느껴진다.

Hidden Hero

Q1. 독립운동가의 필적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1년간의 검사 재직 기간 동안, 강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필 자술서를 자주 보게 됐어요. 범죄자의 글씨는 평범한 사람의 글씨와 달리 매우 특이한 경우가 많았죠. '왜 저런 글씨를 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글씨를 눈여겨보는 습관이 생겼죠.

그러다가 뉴욕 연수 시절, 미술관에 기증된 유물을 보고 먼 훗날 '기증'을 고려한 수집을 결심하게 됐어요. 무엇을 수집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때, 우연히 대구의 한 고서점 광고를 보게 됐죠. 처음엔 구인후(조선 중기 무신), 구인기(조선시대 문신) 같은 분들의 글씨를 구하려고 찾아갔는데, 독립운동가인 곽종석 선생의 편지를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글씨를 수집하게 됐죠.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독립운동 활동을 한 분들이 매우 많은데,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들의 글씨를 수집해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고 결심했죠. 누군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Q2. 역사 속 인물의 친필을 수집할 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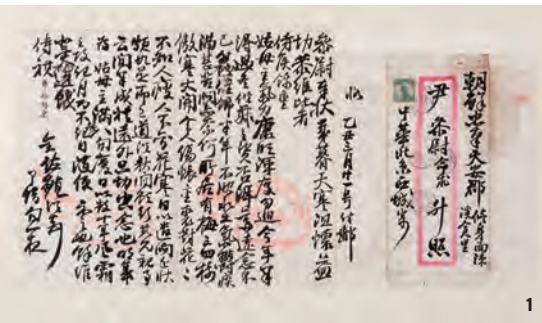
예전에는 역사 인물의 친필 선정 기준이 사회적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우국지사 중에는 순절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개인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무명의 학자이거나 향리여서 관련 자료가 거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의 친필 자료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수집한 필적이 유일한 것일 수도 있기에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간혹 검증자료가 충분치 않아 고증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Q3.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필적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필적학의 요소로 보면 독립운동가의 글씨체는 전형적으로 작고, 네모반듯하며, 각지고 힘찬 필체를 갖고 있어요. 자간은 좁고, 행간은 넓으며 글을 쓴 속도가 느리고 규칙성이 있죠. 반면에 친일파의 글씨체는 크고, 좁고, 길며 유연하고, 아래로 길게 뻗은 형태가 많아요. 자간은 넓고, 행간은 좁으며 규칙성도 떨어지죠. 꾸밈이 심하고, 필선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일부는 불안정한 필치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필적에서 알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성품은 보수적이고, 바르며, 조심스럽고 사려가 깊다고 할 수 있어요. 의지도 강하고, 행동이 일관되며, 겉과 속이 같죠. 반면에 친일파의 성품은 외향적이고, 사려 깊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적이죠.

각각의 특성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만나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본인의 '인격'이 운명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씨는 곧 그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글씨를 통해 그들이 역사에 남긴 궤적을 역추적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불의에 맞서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좇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1. 김좌진 장군 친필
2. 친일파의 친필
3. 김구 선생의 친필 앞에서



Q4. 역사적으로 존중받는 인물의 필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상 아주 좋은 글씨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과 정조, 정약용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죠. 안중근 의사의 필적에서는 강한 힘과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져요. 예전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 전시회에 간 적이 있는데, 필체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져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굉장히 강한 필압을 가졌는데, 이 경우 큰 업적을 이루거나 반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안중근 의사의 경우 매우 반듯한 성품을 가진 분이기에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엄격하고, 의지가 강해 숏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그분들의 필적을 통해서 항일정신을 온전히 이어받고, 아름다운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나라사랑의 삶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친필 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당시의 유의미한 기록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제가 수집한 독립운동가, 친일파 관련 친필만 해도 1천여 점이 넘는데요.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역사 속 '히든 히어로'의 친필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항일지사들의 숨결을 글씨를 통해 오래오래 느껴보고 싶어요. 🌸



잊혀진 이름 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지만 큰 영웅들'을 발굴하여 소개합니다.